

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 ▶ <http://www.iwate-ia.or.jp/>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1

 財団法人 岩手県国際交流協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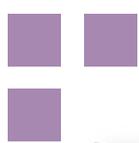


2011 いわて国際交流

2011 이와테 국제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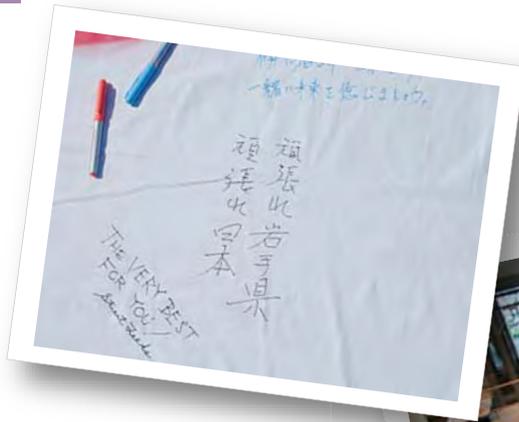
Vol.70

■ ■ ■ 특집



▶ 평범한 일상 속에서
~ 이와테의 국제 교류 · 다문화 공생 ~

がんばれ岩手!
힘내라 이와테!



한국어

대지진 재해에 대해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동북지방 태평양해안 지진·해일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영령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지진 피해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현민 여러분 및 본 현 거주 외국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 현에서는 현재 닷소 타쿠야 지사를 선두로 관민이 총력을 기울여 구원 부흥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당 협회도 현의 담당 부서와 연락을 취하며 외국인분들에게 상담·정보 제공 등 구원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현에는 약 6,000명의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일시 귀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빨리 여진이 안정되어 다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전과 같은 온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년, 미야기 해안 지진이 앞으로 30년 내에 99%의 확률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관측 사상 최대인 매그니튜드 9의 거대 지진은 세계에서조차 최대급으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본 현 연안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흥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경비가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흥에 있어서는 일찍이 도쿄시장으로서 현재의 「쇼와도리(昭和通)」에 그 일면을 남겼으며, 또한, 1923년(대정12년)의 관동 대지진 때, 내무대신 겸 제국수도부흥원 총재로서 활약한 향토의 선조 고토 신페이의 기개 장대한 구상력을 상기하는 것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신 대지진 때, 훌륭한 매너로 일본인은 세계 사람들을 감탄시켰으며, 이번에도 다시 칭찬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지원의 손길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 사람은 끈질김이 장점이며 이와테현에는 「두레」의 전통도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여러분의 협력을 받아가며 손을 마주 잡고 향토 부흥에 노력합시다.

저희 협회 직원 일동도 미력이지만, 앞으로도 관계 단체와 제휴를 취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24일

財団法人岩手県国際交流協會
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理事長 安藤 厚
이사장 안도 아츠시



Clinton Fairbanks 씨
(미국·유타주)
전 이와테현 국제교류원

제가 사랑하는 이와테현이 지진 피해를 받은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방송에서는 매우 두려운 것만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와테현 연안의 피해가 커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리오카에 살았을 때, 「이와테현 사람들은 “끈질기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와테 사람들은 모두 매우 침착하고 자신이 피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등, 여러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저의 근무처에서는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서 의연금 1억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직장의 허가가 나오면, 이와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耿非祥 (코히쇼우)씨
(중국·산서성)
전 이와테현 국제교류원

동일본 대지진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는 피해가 크다고 보도되어, 곧바로 저의 머리속에는 1년간

근무하고 생활한 아름다운 경치의 이와테현과 그 곳에 있는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의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와테현에 살고 있는 중국인 친구 및 관계자에게 연락해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모두 이와테현의 복구에 힘을 쓰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 안심했지만,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日本加油! 岩手加油! (일본 힘내라! 이와테 힘내라!)



작년, 한국교원 방일연수단으로 이와테현을 방문한 교원분들로부터 의연금 9만 엔과 이와테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사진 좌측부터)

배 장렬 씨
아름다운 이와테현을 지켜주세요. 힘 내십시오.

신 춘희 씨 (단장)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일본 학생들이 반드시 재건해 낼 것입니다.
하나마키히가시 고등학교 파이팅!

이 은정 씨
일본이 이전의 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

연 재희 씨
힘 내세요. 이와테현

김 광호 씨

Jim Vopat 씨

(미국·일리노이주)
「페어런트 프로젝트」 창설자

일본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저는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잘 있는지 걱정이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커뮤니티 연대는 견고히 이어져 미래를 재구축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은 대재해를 입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밝은 날들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Doug Ferrier 씨 (미국·일리노이주)
전 외국어지도 조수(助手)
(1997-1998년 모리오카기타 고등학교)

이와테를 떠난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이와테에서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와테는 복구되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많은 원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일리노이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 어떻게

지원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톤 누 줌 토우씨
(베트남)
후외국어대학 일본언어학과 부학과장

재해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됨에 따라, 이재민수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일본!

베트남 후외국어대학(일본언어학과)의 전원) 교원 및 학생들은 일본에 의연금을 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은 작지만, 진심으로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빨리 넘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일본! 힘내라 일본! 힘내라 일본!



李晏喬(리안교)씨
(중국·상둥성)
전 외국인 상담보조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3년간을 아름다운 이와테에서 친절한 이와테분들에게 보살핌을 받아 다양한 유학생생활을 보냈습니다.

대지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큰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재민분들의 모습에 경외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복구로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용감한 여러분은 더욱 아름다운 이와테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메시지, 의연금이 도착해 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메시지, 의연금 감사합니다.

당협회 홈페이지에도 받은 메시지 등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 이와의 국제 교류 · 다문화 공생 ~

현 내에 사는 외국인인은 6,200명을 넘어 주변의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은 2010년 2월에 「이와테현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을 책정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문화 차이를 느끼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현 내에 사는 외국 출신분들과의 교류, 생활 등에서 국제 교류·다문화 공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와테현은 국적과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생각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이와테현 다문화 공생 추진 플랜」을 책정했다. 2014년까지 5년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의 세 가지 주된 시책 방향 등을 설정했다.

좌담회

달라서 재미있다 !

작은 차이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오해. 서로 알면 이해가 넓어집니다. 몽골에서 온 유학생 라오그자브 문흐बाट트씨, 하나마키에서 일본어 지도를 하고 있는 호타카 마츠요씨, 이와테대학 국제교류센터 준교수 마츠오카 요코씨가 평상시의 생활 속 경험담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언어의 벽

마츠오카 일본어 학습 지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호타카씨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어떤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호리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소한 일본어가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3년 정도 산 한국 분은 가족에게 「水をくんできて(물을 퍼와)」라고 들었는데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入れる(넣다)」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 「くむ(퍼담다)」라는 말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교과서에 없어도 평상시 사용하는 말을 조금은 일본어 교실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흐बाट트 저는 몽골에서 일본어 공부를 해 왔지만, 일본에 와 보니 몽골에서 배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공손한 말(です・ます調)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위화감이 들어 거리를 느낍니다.

마츠오카 대학 안에서도 유학생이 공손하게 말을 건네면 일본인 학생은 친근감을 느끼지 못해서 거리를 뒤흔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유학생에게는 일본인은 차갑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어 친구가 되는 계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벽 앞에 언어의 벽이 되어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호리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말에 따라 존경어 등을 가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가르치는 쪽에서 판단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흐बाट트씨는 몽골에서는 거의 글자 학습만을 하였는데, 일본어의 사용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군요.

마츠오카 문흐बाट트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일본인과 사귀려 하고 있습니다.

문흐 모처럼 일본에 와 있으니까, 여러 사람과 교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츠오카 적극적인 사람은 금방 말을 배우고 아는 사람도 늘어나 세계도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성격도 다문화이며, 인간 사회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알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문흐बाट트씨는 일본에 살면서 곤란한 일이나 고민했던 적은 없습니까? 친구로부터 고민을 상담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흐 일본에서는 자신이 손을 뻗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상담을 하면 상담에 응해 주는 창구도 있어서 현재 고민은 없습니다. 싫은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마음에 남지 않게 바로 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테대학에는 몽골인 유학생이 8명 있는데, 매월 모여서 생활 등의 고민을 서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마츠오카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의 자조(自助) 그룹이 있으면 좋은 것일까요? 다만, 통합된 그룹을 만든다고 해도 집이 멀다든지, 같은 나라 사람이 없다든지, 같은 나라라도 생각이 아주 다른 상황에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호리카 형식이 갖추어진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 부담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차이

호리카 문호बाट씨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를 받아 곤란했던 일은 없습니까?

문호 곤란했다기보다는 폐를 끼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일본인 친구와의 약속에 늦게 가서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인은 10시에 모인다고 약속을 하면 모두가 11시 전에 모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도 몰랐기 때문에 왜 친구가 화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일본인 친구를 화나게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몽골과 일본은 시간 감각이 달랐습니다.

마츠오카 시간 감각의 차이는 특히 지역 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리카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의 학생 중에는 온다고 하고 오지 않거나, 설 때 연락이 없는 등,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은 그런 시간 감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츠오카 신경 쓰는 부분이 각각의 문화에서 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대면의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인은 친해지기 위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인은 사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실례인 때가 있습니다.

문호 문화 차이라면 몽골에서는 식사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메밀국수와 우동 등은 소리를 내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인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머리를 건드리지만, 지금도 어딘가 모르게 싫습니다.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몽골에서는 패배를 의미하므로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마츠오카 간혹 같은 동작(행위)에서도 전혀 뜻이 다른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인이 「정좌(무릎 꿇고 앉기)는 범죄자 같아서 싫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부분과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郷に入っては郷に従え(그 고장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곳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다면 그대로도 좋고, 안되면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우선은 다른 문화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리카 일본인의 경우,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에 맞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동할 때가 있으니까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문호 일본은 단체 행동을 하는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나라는 다르다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체 행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 행동한다면 모두에게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츠오카 확실히 그쪽이 편하지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맺은 후에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마 친구가 된 일본인은 문호बाट씨를 알게 되기 전과 후, 자신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국 사람과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을 되돌아 보게도 되고, 다른 곳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문호 최근에 일본인 친구에게 「나 좀 더 세계를 크게 봐야 할 것 같아. 몽골에 가자. 너와 만난 것은 운명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뻐했습니다.

마츠오카 유학생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려는 정책(*)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감각의 사람을 늘리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와테에 두문불출하고 있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부터는 들어 오는 사람(유학생)도 늘어나고, 그 자극을 받아 나가는 사람(일본에서 해외로 가는 사람)도 증가할 것입니다.



라오그자브 문호बाट씨
(Лхагважав Мөнхбат)

이와테대학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경제과정 2년

몽골 출신. 모리오카에 온 지 2년. 특기는 몽골 씨름과 유도 등, 스포츠맨. 장래에는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며, 무역회사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

(각주) * 「유학생 30만 명 계획」...2008년 일본 정부가 발표했으며, 「글로벌 전략」을 전개하는 일환으로서 2020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 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타카 마츠오씨

하나마키 일본어 써포터즈 「스텝」 대표.

하나마키 일본어 써포터즈 「스텝」 대표.
신조는 「 즐겁게 건강하게 끈기 있게!」
하나마키시 및 주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지도와 일본 문화 소개를 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이 기분 좋게 사회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락처 はなまき日本語サポーターズ「ステップ」
〒025-0092 花巻市大通り1-2-21花巻市国際交流センター内
TEL: 0198-22-7390 FAX: 0198-22-7399

다문화의 필요성

문호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에게는 적응할 때까지 천천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면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일본에 와 3개월 동안은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면 반대로 몽골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몽골도 일본처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츠오카 예를 들면?

문호 시간을 지키는 것, 모두를 서로 존중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이것은 몽골어로는 번역할 수 없네요.

마츠오카 よろしく(요로시쿠. 남에게 호의를 나타내거나 무엇을 부탁할 때 곁들이는 말)라는 말은 어느 언어에서도 번역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호리카 확실히 영어에도 없네요.

문호 よろしく(요로시쿠)라는 말을 몽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츠오카 반대로 몽골의 어떤 것을 일본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몽골 사람은 보통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일본인은 잔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천천히 한가로이 생각하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츠오카 일본인은 고지식한 면이 있으니까요.

호리카 일본에만 살고 있으면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신은 성실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문화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츠오카 다문화 공생에서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빈틈이 없으면 싸움이 되거나 대립하게 되어서 서로 힘들어집니다. 「何とかなる(어떻게든 된다)」로 해결되는 일이 꽤 있지 않을까요? 모처럼 다른 문화의 사람이 있으니까 차이를 즐길 수 있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화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는 원래의 문화를 허물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지키고 싶단지, 이것은 무너뜨려도 된단지를 결정해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생의 실마리

마츠오카 언어의 문제, 습관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공생해 나가면 좋을까요?

호리카 처음부터 자신의 문화가 최고라든지 올바르다고 생각해 버리면, 문화가 다른 상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여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일본인은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친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츠오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질지 안 가질지에 따라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는 반드시 외국인만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이의 차이, 성별의 차이, 습관의 차이 등 각각의 차이를 소중히 하면서 맞출 수 있는 점과 바꿀 수 있는 점을 결정해 간다면 좋겠습니다.

호리카 여러 사람과 접하다 보면 자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차이를 알고 있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어렵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조금씩 알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처럼 자기가 먼저 말을 건낼 수 없는 사람은 몇 년을 살아도 일본어를 익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 갈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츠오카 요코 씨

이와테대학 국제교류센터 준교수
전문 분야 : 일본어 교육, 사회학

현재, 독일, 프랑스,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 언어 정책을 조사해, 이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공통 언어 구축에 대해 연구 중.

상대를 이해하기

「정말 즐거워」라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해주신 모리오카시 우에다초등학교 일본어 교실의 담임 아이하라 마사노리 선생님. 여러 언어가 들려오는 교실은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장소. 선생님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하라 마사노리 선생님

공간

아이들 곁에서 「난 너희를 보고 있어」라고 전합니다. 평가하는 것보다 「기다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 편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다양한 이문화, 많은 표정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무리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것. 「알지 못하는 것」과 「이해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고, 불안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힘을 얻으면 아이들은 그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힘을 억눌러서는 안 되며, 개성을 살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일본 대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모처럼 일본에 왔으니 아이들에게는 일본을 좋아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체재했을 때의 과거를 즐겁게 웃는 얼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싶습니다. 귀국하면 자신이 먼저 발신할 수 있는 「어린이 일본 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일」과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끈

우에다초등학교의 아동들은 매우 우호적입니다. 아동들에게는 외국에서 온 작은 국제인의 존재는 드물지 않은 매우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평소 국제

교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이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빨리 익숙해져 버립니다. 새로운 아이가 오면 「또 왔다!」라며 깊은 흥미를 보입니다.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벌써 돌아가는 거야?」라며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언제부터 교실에 올 수 있어?」라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어보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들이 학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바라는 일본어 교실로서는 매우 든든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버팀목에는 언어에 의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외국인 아이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싸움도 하지만, 아이들만 이해하는 공통적인 마음이 강하게 묶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나라 같은 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상대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있는 곳의 문화, 그리고 그곳의 료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통용되지 않거나 좋은 일 등을 본인이 느껴서 알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쓸모없는 트러블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새로운 아동을 맞으면서

모리오카시립 우에다초등학교 일본어 교실

이와테현에서 초등학교에 일본어교실이 있는 곳은 한 학교밖에 없다. 1996년, 자녀를 둔 유학생이 이와테대학에 늘어난 것을 계기로 설립되어, 현재는 외국 출신 9명의 아동을 서포터하고 있다. 체재기간은 1주일 ~ 4년. 국적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여 국제 교류의 다리로서 각 개인에게 맞춘 충실한 지도를 하고 있다.

모리오카시립 우에다초등학교
(아동수 387명, 사카모토 유키오 교장)
〒020-0066盛岡市上田三丁目16-45
전화 : 019-623-3428 FAX : 019-623-3429

일본어를 배우는 청춘

어머니의 결혼을 계기로 중국에서 시와초(紫波町)로 오게 된 누노야 신씨. 어머니들 사이의 인연으로 그 후 다른 현에서 시와초로 오게 된 호쥬 토모히로씨. 2007년도 두 사람은 시와초립 시와제2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일본어를 배우고 학교생활에 익숙해졌을까요?

개성 있는 두 사람

명랑하고 농담을 좋아하는 누노야씨와 성실하고 신중한 호쥬씨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외운 일본어는 누노야씨 「이거 뭐야?」, 호쥬씨 「일본어 몰라」 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본어 수업을 매우 의욕적인 자세로 받고 있습니다. 누노야씨는 틀려도 먼저 무엇이든 말하는 것에 비해서, 호쥬씨는 문법을 분석하고, 잘 생각하고 나서 말합니다.

누노야씨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틀린 말을 썼을 때는 친구에게 올바른 일본어를 배웁니다. 호쥬씨는 스스로 먼저 말하는 일은 많이 없지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텔레비전 뉴스, 신문에서 본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수업에서도 그 말에 대해 물어봅니다.

「두 사람에게 친구가 생겼을 때, 학교에 익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와즈미 야스키 교장을 비롯해 교사들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육상부에 들어갔지만, 그 후에 같은 학년이 한 명밖에 없었던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누노야씨는 농구부를 이끌고 호쥬씨도 농구 연습에 매진함으로써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노야씨는 부 활동 교문 선생님의 흥내를 내어 주위 분위기를 좋게 하고, 호쥬씨는 숫하는 방법을 부원에게 물어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대화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농구를 잘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좌) 누노야 신 학생 (우) 호쥬 토모히로 학생

굳게 가지고 노력한 결과의 결실로 「뛰어」, 「패스해」 등을 지시하거나 주위를 리드하여 믿음직한 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럭비 시합에도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는 일본어는 사용하면서도 자세한 것을 전하는 표현은 아직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커뮤니케이션에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타고난 명랑함과 노력으로 극복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어 수업으로 고민하면서도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얻은 일본어의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누노야씨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나의 주장」이라는 변론대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

고등학교 수험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누노야씨는 「하키 등 농구 이외의 스포츠에도 도전하고 싶고, 장래에는 통역 등으로 일본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호쥬씨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앞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많은 일과 직면하고 모국어가 달라서 고난도 겪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일본어를 배우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와초립 시와제2중학교

(학생 177명, 이와즈미 야스키 교장)

2008년 학교 내에 전입한 중국출신 학생이 편입함으로써, 중국에서 일본어 지도 경험을 가진 국어과 교원을 중심으로 대응. 초교육위원회는 초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을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서 스쿨 헬퍼로서 2009년도까지 배치. 현재는 중국출신 학생 3명이 재학 중. 3학년인 2명은 올봄에 고교진학을 위해 입시를 치른다.

다른 현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특별한 입시 제도를 준비한 적도 있지만, 현 내는 공립·사립고교가 아닌 개별로써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028-3312 紫波郡紫波町犬吠森字間木沢70
전화:019-672-3480 FAX:019-672-3383



일본어 수업 풍경

아니카와에서 함께 하는 「생활」

하치만타이시 아니카와 지구. 태국 출신인 세키 치에(짜이)씨와 남편, 장남의 세 식구가 다른 현에서 남편의 출신지로 이사 오게 된 것은 장남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모두는 친절하니까 잘 지낼 수 있어」치에씨의 생활은 전통 예능이 있는 지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합니다.



(좌) 태국 출신의 세키 치에씨
(우) 하야토씨는 고등학교 3학년

지역에 「산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저를 도와줍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치에씨의 말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게 전해집니다.

다른 현에서 이사 왔을 때 익숙해질 수 있을지, 잘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거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곧 없어졌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말이나 방언, 문화나 관습의 차이 등에 대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으면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거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준 일도 있습니다. 잡초 뽑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모두 모이고 작업이 끝나면 집에서 직접 담근 절임 음식과 요리를 가지고 모여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습니다.

「모두 가족 같아!」지역에서 모두 가족 같은 관계.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지역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음식을 통해 넓어지는 「고리」

태국의 「툼양꿍」을 지역 초등학교 교류회에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요리는 매우니깐 집에서 일본요리를 만들어 먹어요」가끔 가까이 사는 같은 고향의 사람들과 태국 요리를 만들면서 즐깁니다.

무엇보다 치에씨의 즐거움은 일 년에 서너 번 산나물을 캐러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은 풍부한 자연환경이었지만 산이 적기 때문에 산이 많은 아니카와 지역이 새롭게 보입니다. 산나물을 나누어주거나 대접하는 등 음식을 통해 이웃들과의 친분도 충실히 쌓고 있습니다. 남편과

산나물을 캐러 간 적도 있고, 앞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인 장남 하야토와도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향토예능 「아니카와 불제 의식」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가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치에씨. 한편으로 하야토씨도 향토예능을 배워 지역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춤출 수 있어서 즐겁고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씩 교대로 소리를 내며 춤추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하야토씨는 친구와 지역 사람들에게 권유받아서 시작했을 때, 춤에 담긴 의미나 역사도 모른 채 춤을 추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서 지금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불제의식(先祓い)」을 하야토씨가 시작하고 나서 치에씨도 향토예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국에도 춤이 있고, 춤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본도 태국도 같습니다. 전통 예능을 춤추는 아들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에씨의 생활을 통하여 느껴진 것은 지역 사람들과의 따뜻함과 그 속에 녹아들려고 하는 치에씨의 마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2010년 12월 11일(토)
모리오카에서의 첫 공연 모습

아니카와 불제 의식 (兄川先祓い)

하치만타이시(전 아시로초)의 타테이치지구 아니카와 취락에 전해지는 전통 예능. 제전의 가마 행렬 선두에 서서 가마가 지나가는 길을 신에게 빌면서 부정을 씻으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유래. 「덴데코(デンデコ)」 「타치쿠루마(立ち車)」 등 8종류의 춤이 있다. 야마부시 카구라(山伏神楽)가 변화한 것이라고 불리며, 이전에 아시로초 타야마지구 대부분의 취락에서 춤춰지고 있었지만, 아니카와, 마가타, 타야마, 오리카베히도로 4곳만 남아 있다. 매년 7월 셋째 주 일요일에 아니카와 이나리신사(兄川稻荷神社)제전에서 정기 공연이 있다.

아니카와 불제의식 보존회 사무국
TEL: 0195-73-2586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으로

하나마키시 상점가의 모퉁이, 가게 처마에 매달려 이국정서가 감도는 빨간 제등. 가게 안에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웃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나모토 켄씨. 마치 어릴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지역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웃게하는 불가사의한 매력을 가진 점주· 미나모토 켄씨

하나마키에서 개점

작년은 일본에 온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건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 대학에 유학했습니다. 그 후,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 상해의 복단대학에서 기업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일본 기업에 취직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워온 것을 살리기 위해 회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이 겐지상점입니다. 하나마키는 부인의 출신지라는 점도 있지만, 중국물건 전문점이 없었고, 누구라도 부담 없이 사러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풍부한 자연이 있는 점. 그리고 도시보다 하나마키가 더 인정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 지역과의 관계

처음 가게를 내려고 했을 때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영업 일과 일본 기업의 사장 가까이에서 경영에 관해 일했던 경험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인이 가게의 선전을 하고 장모는 아이를 돌보며, 부인이接客을 맡아 가족 모두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점할 때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시청과 상공회의소분들, 점포를 빌려준 주인. 모두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주인은 상품 진열장 등 원래 있던 것은 써도 된다고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교류의 시작

개점 첫날에는 신문을 보고 모리오카나 센다이 등 먼 곳에서 와주신 부부도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중국 출신의 부인이 모국의 물건을 접하고 싶어

거라고 배려해줘서 4시간이나 걸려서 와 준 손님. 남편이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국제결혼으로 습관, 생각, 가치관이 다른 부인과 가끔 부딪히는 일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넓고 다정한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점을 갖고 있으니깐 싫다고 상대하지 않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저는 상해 출신이지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조부모님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조부모님 집은 대가족이라서 모두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중국어 교실과 서예교실, 중화요리 교실을 누구라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무료로 열고 있습니다. 서예는 저도 아직 공부 중이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저도 공부가 됩니다. 이 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인, 일본인 학생이 모두 친구가 되고, 더 교류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 자신은 가게 덕분에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중국에서는 옛날에 식사로 병을 고치는 것을 중시하여, 병을 예방하는 식의(食医)라고 불리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도 지위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중국 문화를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전하면서 금침채와 구기자 열매 등 몸에 좋은 중국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마키에 사는 중국인 연수생의 상담과 통역, 하나마키 온천 등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 협력 등을 통해 활동을 넓히고 싶습니다. 중국과 이와테의 교류를 위해서 좋은 문화를 서로의 나라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국물산 「겐지상점(源氏商店)」

소흥주, 두반장, 흑식초, 화초 등의 조미료, 금침채, 피단 등 이와테현에서 좀처럼 구할 수 없는 중화 식재를 취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맥주와 주스, 찻잎, 모국 정보를 알고 싶은 중국 출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 신문도 다수 배치하고 있다.

〒025-0087 花巻市上町2-1
TEL/FAX 0198-22-2200
E-mail : genjishoji@hotmail.co.jp



지역 분들에게 「건강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 행복의 원천」으로 사랑받고 있는 겐지상점

러시아에서 이와테로

코로보흐 드미트리씨.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출신의 33세. 이와테대학 인문사회과학 연구과 수료 후, 모리오카 시의 번역 회사에서 기획업무부장으로 번역·통역 일과 러시아어 강사도 맡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와테대학 시절의 동창생인 일본인 여성과 결혼. 이와테의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즐기면서 이와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상)코로보흐 드미트리씨
(하)이와테산 정상에서



이와테의 첫인상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 대단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것만이 좋았고, 그 후 설마 일본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학에는 일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였고, 특히 근래의 일본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이와테현에 가게 되었지만 이와테의 이름도 몰랐었습니다.

이와테에 온 것은 1998년 10월. 일본에서는 추운 지역이지만, 러시아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시는 인구 450만 명을 넘는 대도시. 그래서 작은 도시에 왔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위기에 빠져 있어서 대단한 인플레이션 경제 상태였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랐습니다. 이와테에 온 후 일본은 물건도 풍부하게 있고 어디에서도 살 수 있는 조직적인 사회라고 실감했습니다.

이문화 쇼크

이와테에 살기 시작하면서 거리의 건물부터 사람의 복장이나 모습, 행동 등 하나부터 열까지 러시아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1, 2년은 무엇보다 익숙해지는데 고생했습니다. 특히 일상 회화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어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문법 중심이었으니까요.

대화 속에서 제일 놀란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러시아와 전혀 대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회화 리듬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대화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며 일본과 같이 고개를 끄덕여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5, 6년간은 의식적으로 흉내를 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를 합니다. 러시아인들이 일본인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처음 1, 2년은 음식으로도 고생했습니다. 거의 한자를 읽지 못해 가게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헤맸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포장을 보고 샀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바(메밀국수)를 샀습니다. 스파게티와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대실패였습니다.

초밥에도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날것을 먹는 습관은 없습니다. 익히거나 삶거나 굽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대단한 문화 쇼크였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두부와 떡 등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와테에서 일하며

저는 2005년부터 이와테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정확하게 말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습관, 일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좀처럼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점 등 일본 특유의 문화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꽤 익숙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상하 관계입니다. 선배, 후배라고 하는 관계가 이상했습니다. 손윗사람에게는 말투가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니까요.

직장까지는 자전거나 버스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이와테 자연의 훌륭한 환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테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와테산, 히메카미산 등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가를 달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와테와 모리오카의 전통문화와 오래된 거리도 좋아합니다. 꼭 보존되었으면 합니다. 결혼으로 생활은 더욱 일본식, 이와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마다 독자적인 문화와 가치 기준이 있어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재미와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쿠즈마키고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와인으로 나누는 교류

쿠즈마키쵸는 와인과 우유 그리고 클린 에너지의 마을. 그 중 하나인 와인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 교류처로, 독일 라인란트 팔츠주에 있는 와인과 온천의 거리 바트 뒤르크하임. 그 교류에 대해서 사무국의 우루시맛카 미치루씨와 세키무라 타카후미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사무국의 세키무라 타카후미씨(좌), 우루시맛카 미치루씨(우)
쿠즈마키고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사무국

바트 뒤르크하임과의 교류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 시찰은 98년에 명칭을 「와인과 우유의 여행」으로 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와인 산지와 유럽 다른 나라의 낙농가를 시찰했습니다. 그 후, 바트 뒤르크하임이 와인과 온천으로 우호 관계를 쌓아 갈 수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찾고 있다는 현의 소개가 있어서 2003년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町)내에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공무원, 의회 의원, 학교 교육 관계자들로 구성된 「쿠즈마키고원 국제교류추진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와인 생산자의 상호 교류, 문화 교류,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를 활동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써 지역의 고등학생도 유럽 시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트 뒤르크하임은 독일의 중서부 라인란트 팔츠주에 있는 독일 와인의 거리 중심에 있고,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와인의 산지입니다. 인구는 약 2만 명이며, 9 월에는 세계 최대의 와인 축제인 「뷔르스트마르크트」가 개최됩니다.

2005년 9월, 바트 뒤르크하임에서 루츠시장과 함께 사회인과 학생 등 14명의 시민 볼란티어가 쿠즈마키쵸에 방문했습니다. 쵸내의 가을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기모노를 입거나 다도를 배우는 등 일본문화를 접하였고, 학생들은 지역 고등학교의 부 활동에서 유도와 검도를 배우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2005년 쿠즈마키 가을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한 바트 뒤르크하임 시찰단

쿠즈마키고원국제교류추진협의회 사무국
〒028-540 岩手郡葛巻町江刈1-95-55
葛巻高原食品加工株式会社内
TEL: 0195-66-3111 FAX:0195-66-3112

인재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매년 4,5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연수에서는 바트 뒤르크하임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종이접기와 서예 등 일본 문화를 소개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곳은 현지의 교류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볼란티어의 자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와인 축제 「뷔르스트마르크트」의 퍼레이드에서 대형 플랜 카드를 들고 선두로 걸으며, 준비해 간 유카타를 입고 산사 춤을 보여줍니다.

방문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자세에 놀라거나, 홈스테이 집에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침묵하거나, 음식문화,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길거리와 자연에 둘러싸여,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따뜻하게 맞아준 홈스테이 가족과 방문한 학교에서의 대우 등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끼게 되면서 서서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독일어,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라며 웃는 얼굴로 돌아온 학생들을 보는 가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부모님에게 기대기만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며, 한층 더 성숙해진 학생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시찰과 기술자 연수도 포함된 와인에 관한 교류 중심 활동 이외에, 머지않아 오게 될 바트 뒤르크하임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찰 후, 쿠즈마키에서는 마을 안에 꽃바구니를 장식하거나 세련된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교류의 영향도 보입니다. 또한, 바트 뒤르크하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통을 모티브로 한 건물의 건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2011년은 「일독 교류 150주년」입니다.

Keith Wyss

렌즈 너머로 보이는 이와테

스위스 출신의 사진가 키스 비스씨는 21세. 이치노세키시를 활동거점으로 현 내 및 일본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이와테에서 첫 사진전 「Travel Report from Europe~유럽 탐방~」를 아이나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키스 비스씨의 홈페이지 Right Light GmbH
<http://www.right-light.jp> (일본어), <http://www.right-light.ch>



사진을 찍다

사진은 6살 때부터 찍었습니다. 주로 자연, 동물, 식물을 피사체로 하였고, 14살 때부터는 제 전용 카메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니콘 카메라였는데 매우 비싼 카메라였습니다. 사진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IT 학교에서 회사 경영과 경제 구조를 공부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와테와의 만남

2010년 일본 전국을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일본에서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행한다면 히라이즈미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치노세키에서 만난 분들이 도와주신 일도 있어서 이치노세키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치노세키는 히라이즈미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동북 지방을 돌아보기도 편하고, 동경을 갈 때도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일본어의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아는 분이 소개해주셔서 일본어 레슨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레슨이 일본어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주로 단어를 외우는 수업이 많아서 앞으로는 마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수업 틈틈이 궁도, 유도, 검도, 서예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서예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장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왔지만, 어느 사진을 제일 잘 찍었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추손지에 만발했었던 산나리의 아름다움은 인상 깊어 잊을 수 없습니다. 추억이 깊은 사진입니다. 정적의 분위기를 발하는 이 꽃은 우리에게 평화의 고귀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를 외울 수 있고 쓰는 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치노세키에 있는 친구, 이와테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존재 없이는 이와테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행과 사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테가 좋아

주로 히라이즈미를 거점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손지(中尊寺)나 히라이즈미의 아름다운 세계에 매료됨과 동시에 이와테산(岩手山), 미야코(宮古)에 있는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관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오카의 산사 춤 등의 전통 예능도 사진에 담고 있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은 매우 근사해 겨울 스포츠를 하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스노보드를 타면서 겨울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품에 호감을 느끼고 있고, 「마음」을 좋아합니다. 무척 친절합니다. 반대로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히라이즈미를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일인데, 히라이즈미 카이세키(平泉会席)라는 요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옥돔 등의 어패류를 좋아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리를 담고 장식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도 매력을 느끼지만, 역시 이와테가 좋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이와테에서 사진을 계속 찍고 싶습니다.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싶습니다. 사진도 프린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가지 발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외에도 스위스 특제 초콜릿을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일본 초콜릿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여러 종류의 맛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가본 관광지와 명소에 가고 싶습니다. 이와테에서는 토오노시(遠野市)에 흥미가 있고, 캇과(河童)의 존재가 아주 궁금합니다.

2010 One World Festa in Iwate

2010 원 월드축제 in이와테 ~ 기분은 세계일주 「초이박(ちょい博)」 대모험!

- 유니세프 주사위
(협력 : 일본유니세프협회
이와테현지부)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도상국의 문제에 관해
배웁니다.



「초이박」이란... 「작은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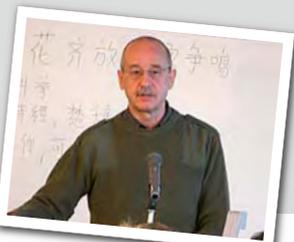
일시: 11월 28일(일)
장소: 아이나 4th&5th

5회째를 맞이한 「원 월드축제 in이와테」는 이와테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현민이 교류하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생 사회에 관해 생각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회는 많은 거주 외국인과 자원봉사, 국제 교류 단체와 함께 협동으로 개최했습니다.

- 제10회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

「외국인이 보는 일본인론」
~ 일본과 중국의 비교 문화

강사: 우브에 리히타씨
(이와테현립대학 교수)



- 교류 파티
~Autumn Prom~
세계의 춤 & 음식
& 교류를 즐겨보자!
「가을을 이미지 하는 색」의
웃을 입거나, 민족 의상으로 참가.

- 춤
 - 댄스 쇼(일본인 그룹의
홀라, 위구르의 댄스,
콜롬비아의 라 포제라
코로라)
 - 세계의 댄스
레슨(멕시코, 영국의
포크댄스, 남미의 레게톤)
 - DJ타임에는 자유롭게
 - 마지막에는 모두 「산사 춤」을
추었습니다.

- 음식
11월 3일 개최 「페어 트레이드 요리
콘테스트」에서 베스트 페어 트레이드
레시피 수상작 「스파이스 멘치」를
시작으로 각국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 춤과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교류했습니다.

프로그램

- 현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약 20개국의 외국 소개 부스」
- 국제 교류 단체의 전시
- 제128회 외국인과의 교류회 “챗토 란도”
「외국인은 봤다! 이와테란 ☆ * ◆ ...」
- 화(和)·문화 체험 코너
- 국제 이해 워크숍
- 키즈 랜드 ~ 세계의 장난감과 놀아요!
- 페어 트레이드 카페 ~ 세계의 과자도!
-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
- 교류 파티 「Autumn PROM」

- 페어 트레이드 카페
(협력 : 페어 트레이드
이와테)



- 외국 소개 부스
~ 월드 랜드 ~

스탬프 랠리로 세계일주!
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의한 약 20개국의
「외국 소개 부스」.



- 화(和)· 문화 체험
- 서도
(지도 : 이토 야스코씨)
형식 없는 서예를 자유롭게
- 다도 (협력 : 일본어교실
이와테 「和」)
- 종이접기



- 키즈 랜드
「외국의 그림책
읽기」와 「세계의
장난감 & 수공예품」
으로 놀아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 ▶ 중국에서 온 중학생의 연수와 고등학생의 독일 연수를 취재하며,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보다 교류가 활발해진 것에 매우 감격했습니다.(E)
- ▶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곳에 뛰어들어보니 그곳에는 희망에 찬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말로는 알고 있어도 잊고 있었던 「보람」이란,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일지도 모릅니다.(non)
- ▶ 카메라맨으로써 취재하러 간 곳에, 중국에서 온 중학생 2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학교에 관한 차이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킨 세이)
- ▶ 많은 멋진 분들과 매력 만점인 이와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성할 점도 있었던 이번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갖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KE)
- ▶ 사람과 만나 그것을 글로 옮기는 작업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완전히 빠진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토오야마)
- ▶ 드리트리씨의 이야기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문화 공생의 실천자. 이와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 젊은 사람들과 편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모리)
- ▶ 각자 다른 문화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사회에서 「모두 납득하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용도 거부도 강제도 포기도 구분해 사용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다문화 공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요. (스)
- ▶ 발행 직전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일부 원고를 변경했습니다. 재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협회로 온 메시지와 의연금에서, 「이와테」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고 느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이와테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 함께 「이와테현」의 부흥을 위해 나아갑시다. (Ta)

한국어

2011이와테 국제교류 Vol.70 / 평성23년 3월

2011いわて国際交流Vol.70 / 平成23年3月発行

■ 국제교류센터

- 개관시간 : 매일 9:00-21:30
- 휴관일:연말연시 (12 / 29 - 1/3)

■ MAP

■ Access

- JR모리오카역에서 도보 4분
- 동북자동차도 모리오카 IC에서 자동차로 8분



편집	이와테 국제교류 편집위원회
편집장	타니후지 아츠코
편집위원	엔도우 사나에, 오모리 후지오, 코무카리 리에코, 사와다테 노부코, 스즈키 이즈미, 킨 세이, 토오야마 아즈사, 하야시 유타카
번역	전도현, 이윤정

발행

財団法人 岩手県国際交流協会
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020-0045 岩手県盛岡市盛岡西通1-7-1アイーナ5F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니시도오리 1-7-1 아이나 5F
TEL:019-654-8900 FAX:019-654-8922
http://www.iwate-ia.or.jp/ Email : kikanshi@iwate-ia.or.jp

본지 게재의 기사, 일러스트·사진의 무단 도용, 복사를 금지합니다.